

광주서 또... 끊이지 않는 운동부 성추행

코치가 안마 받기 여고생 신체 접촉... 학교측 경찰에 수사 의뢰
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상명하복' 폐쇄적 서열문화 개선돼야

광주의 한 고교 운동부에서 또다시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교육 당국의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교육청이 지난해 운동부 코치가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민 사과성명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유사 사건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모고고 운동부 A양이 코치 B씨로부터 두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은 여학생의 피해 내용을 파악해 B코치를 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양은 교육청 조사에서 B코치가 전지훈련 당일 숙소와 차 안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코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성폭력을 비롯한 스포츠계의 4대 악(惡)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운동부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대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초중고를 통틀어 모두 127개에 달하는 학교 운동부에서 언제든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월 한 언론사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공정체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12~15) 동안 스포츠 인권센터에 접수된 한국 유소년(초·중·고) 운동부 내 성범죄 신고 건수는 총 20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성인 팀 등 전체 운동부 성범죄 신고 건수(33건)의 60%에 달한다. 유·소년 운동부가 심각한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학교 운동부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격한 위계질서와 지도자에게 잘못 보이면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기 어려운 체육계의 구조, 물의를 빚고 제명당해도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계의 적폐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운동부의 특성상 명령과 복종의 폐쇄적 서열 문화가 강하다. 외부와 차단된 기숙사나 훈련장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별도의 감시망이 없을 경우 코치, 지도교사 등이 학생들을 언제든지 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도 있다.

광주 모고고 체육교사 C씨는 지난해 3월 부임, 수영감독을 맡은 후 훈련이 끝난 제자 B양을 집에 배래다주면서 차 안에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배구 코치는 지난해 10월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됐으나, 당시 외부와 차단된 교내 합숙소에는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관리자도 남자 감독·코치 단 2명에 불과했다.

체육 관련 지도자, 코치 등의 인권의식이 약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는 해당 학교 측의 태도도 성 폭력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행태도 도마에 오르

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 교육청이 지난해 성추행 의혹과 관련,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에 대한 현장방문과 실태조사, 지도자 스포츠 인권교육 등 대책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지도자의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폐쇄적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충장축제 내일 개막합니다" 1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에서 시민들이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 조형물들을 사진에 담고 있다. 18일 개막하는 충장축제는 22일까지 금남로, 충장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전국 단위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7일 치러진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시험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835개 고등학교에서 약 48만명의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257개교 9만 1000여명이 시험을 본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5교시에 걸쳐 진행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한국사는 필수 응시과목이며 수학 영역은 가형 또는 나형 중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도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

는 참신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 및 한문(아랍어 I, 베트남어 I 제외)로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참신하면서도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출제했다"며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한 학생이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인 성적표는 수능 보름 전인 다음 달 1일 제공된다. 이종형기자 golee@

북구장학회, 내달 2일까지 130명 선발

총 1억1800만원 지급

광주시 북구와 (재)광주북구장학회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17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 대상과 인원은 저소득 자녀·성적 우수자 등 고등학생 74명과 대학생 56명 등 130명이다.

장학생들에게는 고교 50만원, 전문대 100만원, 종합대 150만원 등 총 장학금 1억18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장학생 4명과 장학금 400만원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0월17일) 현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자녀로 고

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성적우수 장학생 중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중 과반수 이상 과목이 2등급 이내여야 하며,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4.0 이상(4.3만점은 3.8)이어야 한다.

저소득 장학생은 2017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학생이 대상이다.

북구는 선발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 개최하는 이사회를 통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참조. 문의 062-410-671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0 해질 17:55 | 가을 03:49 | 가을 16:45

울긋불긋 山下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불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구름많음	12/22
목포	구름많음	13/21
여수	구름많음	16/21
나주	구름많음	10/22
완도	구름많음	14/22
구례	구름많음	9/22
강진	구름많음	11/23
해남	구름많음	11/23
장성	구름많음	9/21
보성	구름많음	10/21
순천	구름많음	13/22
영광	구름많음	10/21
진도	구름많음	12/22
전주	구름많음	10/23
군산	구름많음	11/22
남원	구름많음	10/21
홍산도	구름많음	15/18

◇ 바다 날씨

지역	파고(m)	방향
서해 앞바다	0.5~1.5	북동~동
남해 앞바다	1.0~2.5	북동~동
남부 앞바다	1.0~2.5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동)	2.0~3.0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서)	2.0~4.0	북동~동

◇ 생활지수

지수	상태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파부질환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37	00:11
	17:51	12:33
여수	간조	만조
	01:17	07:34
	13:28	19:47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13/19	구름	18(수)
12/22	구름	19(목)
11/22	구름	20(금)
10/22	구름	21(토)
10/22	구름	22(일)
12/22	구름	23(월)
11/21	구름	24(화)

5·18재단 "광주인권상 후보 검증 강화"

수치 등 수상자 잇단 자격 논란

5·18기념재단이 광주인권상 수상 후보자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소수 부족 학살 방관, 성추행 사건 등 수상자들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5·18재단은 "2018 광주인권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내년 수상자는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04년 수상자인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에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광주인권상 자격 논란이 불거져서 검증 기간을 예년보다 늘려 후보자 자격을 세밀하게 들여다 본다는 입장이다.

또 2007년 공동수상자 중 한 명인 인도 레닌 라구와니쉬가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받고 있어 현재 수상자 자격 유보를 한 상황도 반영했다. 5·18재단은 '광주인권상' 박탈 규정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인사에 대해서는 자격 유보를 하고 있다.

광주인권상은 후보자(단체)들이 추천된 검증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검증위원회는 후보자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검토하며, 심사위원회를 검증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자를 확정한다.

2018 광주인권상은 내년 3~4월 검증회의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발표, 5월18일 시상식이 열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가로수 은행 열매 따주세요"

내달 10일까지

광주시가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를 시민들에게 내놓았다.

광주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가로수의 피해를 예방하고, 낙과 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9월 하순 은행 열매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10곳에서 은행나무 열매 샘플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 오염 적용 기준치 이하 '적합'으로 나타남에 따라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

Aroma Life
www.aroma-life.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대표전화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명회 1등

비비드 아모리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